

트럼프에 의한 카슈끄지 이슈 소멸, 유가하락압박 지속

- ▶ 트럼프는 백악관 성명 통해 카슈끄지 수사 결과 상관없이 사우디 MBS와 굳건한 동맹 명시. 미국과 사우디 대결로 최대 지정학적 이슈 될 뻔한 소재 소멸되며, 사우디-미-러 증산 속 유가하락 압박 더욱 거세질 것

최종적으로 카슈끄지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트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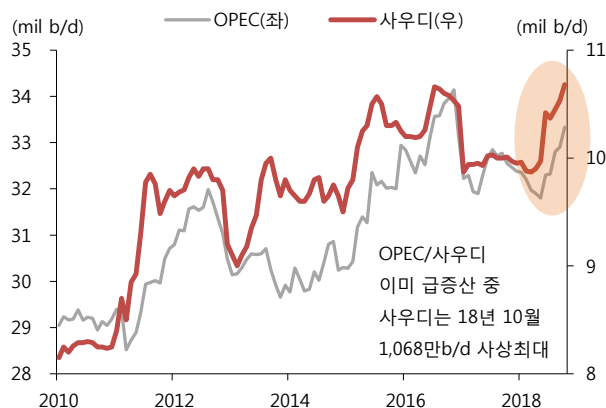
'석유'에 묻히는 카슈끄지... 트럼프 "사우디, 변함없는 동반자"

(전략)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 비극적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 수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중략) 우리는 사우디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사우디가 미국에 4500억 달러(약 508조7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는 수많은 일자리와 거대한 경제적 발전, 부(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힌 뒤 "만약 어리석게도 (사우디와의) 계약을 취소한다면 러시아, 중국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약 우리가 사우디와 관계를 단절한다면 기름값이 지붕을 뚫고 치솟을 것" (하략)

자료 : 동아일보(2018년 11월 22일), SK증권

- SK증권 리서치센터는 2018년 상반기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유가 강세를 주장했지만, 하반기에는 동 이슈 소멸에 따른 약세, 그리고 2019년은 장기 저유가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런 관점을 단 번에 바꿀 수 있는, 즉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상승이 지속될 요인이 있다면 역시 '카슈끄지' 사태였죠
- 만약 미국이 사우디에게 카슈끄지 사태의 책임을 묻고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으로 보였다면, 유가는 당연히 오르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에 대한 사우디, 그리고 왕세자 Mohammed bin Salman(이하 MBS)에 대한 책임론을 앞세우고 있었기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감안할 만 했구요
- 다만 해당 리스크는 트럼프의 한 마디로 소멸된 듯 합니다

사우디 산유량은 하반기 이후 급증하며 사상 최대 도달



자료 : Bloomberg, SK증권

- 트럼프는 21일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모든 사실을 영영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사우디와 관계를 맺을 것"이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 손은 무조건 들어준 셈이죠
- MBS를 지지하는 현실적 이유 또한 공개했습니다. ① 미국에 대한 사우디의 \$4,500억 투자, ② 유가 안정화로 제시했군요
- 어찌 되었든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각되는 strong men인 MBS와 트럼프가 굳건한 동맹을 재차 보여줬으니 카슈끄지 이슈는 조만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그와 동시에 하반기 직후 미국과 합의 하에 공격적 증산을 단행해 왔던 사우디 역시, 해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 사상 최대 산유량에 도달한 사우디, 이미 최대치를 연일 경신 중인 미국, 그리고 증산에 동참하는 러시아까지. 세계 산유량의 약 40%인 3개국 이 이런 스탠스라면 유가하락압박은 더 커지겠군요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 이상 → 매수 / -15% ~ 15% → 중립 / -15% 미만 → 매도

